

한전 'GRC 시스템' 구축...전력 ICT 기술 성과

공공기관 최초 정보보안 위협요소 실시간 종합·계량화 전력거래소, 전력수급 현황 정보 인터넷 포털에 공개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전력그룹사들의 수준 높은 전력 정보통신기술(ICT)이 대내외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한국전력은 공공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정보보안 위협요소를 실시간으로 종합·계량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거버넌스(Governance), 위험 관리(Risk management), 규정 준수(Compliance)의 영문 첫 글자를 조합한 'GRC 시스템'이 그것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2000년대부터 많은 기업이 정

보안 GRC 시스템을 구축해왔지만, 국내에서는 민간 금융사 이후 한전이 두 번째이다.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본산 관리된 정보보안 위협요소를 실시간으로 종합·계량화하고, 이에 따른 위험을 체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됐다.

한전은 최근 전력연구원에서 '정보보안 GRC 구축결과 발표회'를 열고 국가정보원,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보호학회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내용을 공유했다.

전력거래소는 실시간 전력수급 현황 정보를 인터넷 포털에 공개하기로 했다.

그동안 전력수급 상황은 전력거래소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전력정보'에서 제공돼왔다.

이번에는 네이버와 카카오, 다음 등 인터넷 포털에 공개하면서 전력수급 정보 접근성을 높였다.

전력거래소 회원사와 에너지 업계 관계자, 시민들이 해당 정보를 쉽게 확인하면서 전력 수요가 많은 시간대 절전을 유도하는 효과를 노릴 수 있다고 전력거래소 측은 설명했다.

포털 네이버에서는 이달 25일부터 9월8일까지 첫 화면 '공익 배너'에서 실시간 전력수급 현황을 공개한다. 이곳에서는 전력거래소가 제공하는 전력예비율과 공급률, 전력통계 정보시스템 등의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카카오는 여름철 수급 대책

기간 중 특집 페이지를 운영할 계획이다.

한전KDN은 최근 사흘 동안 베트남 호찌민에서 열린 '베트남-한국스마트전력에너지 전시회'(KOSF 2022)에 참가해 전력 ICT 신기술을 소개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3년 만에 열린 이 전시회는 동남아 최대 규모의 전기전력 산업전시회이다. 국내외 주요 업체들이 참가해 전력 에너지 분야의 다양한 미래 트렌드 기술과 전기전력설비, 스마트그리드 등 다양한 분야 전시를 했다.

한전KDN은 이번 전시회에 ▲본산형 전원 출력 제어 단말장치 ▲차세대 배전 자동화 단말장치 ▲배전 자동화 운영시스템 ▲배전 자동화용 근거리 무선통신장치 총 4종 기술을 출품·전시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전KPS, 안전경영 간담회 협력사 대표자 초청

한전KPS는 최근 나주 본사에서 경상정비 협력회사 대표자들을 초청해 '2022년 협력회사 대표자 안전경영 간담회'를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공공기관 안전경영 정책 강화 방침에 대한 상호 이해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했다.

한전KPS는 간담회에 참석한 협력사 대표자들과 안전 대책을 공유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준수를 위한 안전실천 선언식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선언을 통해 안전분야 정보 교류의 중요성과 산업재해 예방 역량 집중 및 소통을 통한 정비현장의 안전문화 확산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흥연 KPS 사장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전은 경영의 최우선 가치"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



최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나주 본사에서 막을 내린 '빛가람 도란도란 클래스' 교육장에서 참가자들이 방향제와 향기 양초를 만들고 있다. <사학연금 제공>

주민과 소통하고 소상공인 돕는 '도란도란 클래스' 성료

사학연금·농어촌공사 등 참여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주민 168명이 참여한 '빛가람 도란도란 클래스'가 열흘간 일정을 마쳤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은 '빛가람 ESG 협의회'가 기획한 '빛가람 도란도란 클래스' 9개 문화강좌를 지난 11일부터 22일까지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교육은 지난 2019년부터 꾸준히 추진돼왔다.

올해 3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혁신도시 우수 사례에 선정됐으며, 지역발전 지원사업에 뽑혀 전남도·나주시로부터 예산 2000만원을 지원받았다.

교육 강사와 재료를 마련하는 데는 지역 소상공인이 참여해 판로 확대에도 힘을 보탰다.

올해 여름학기 강좌는 방향제와 향초 만들기, 나의 첫 뜨개기방 만들기, 예코 꽃꽂이, 꽃바구니 만들기, 유리 가공 등으로 구성됐다.

주민들로부터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강좌를 마

련하며 만족도를 높였다.

빛가람 ESG 협의회는 공공기관이 환경(Environmental)-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 관련 주요 과제를 공동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는 나주 혁신도시의 대표적인 공공기관 협업 기구이다.

사학연금과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력거래소가 참여하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대한민국 청소년 게임잼' 참가자 모집

콘진원 31일까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이하 콘진원)은 '2022 대한민국 청소년 게임잼'(8월19~21일) 참가자를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

'게임잼'이란 게임 개발, 디자인, 기획 등의 제능

을 가진 이들이 팀을 이뤄 시제품 단계의 게임을 만드는 행사다. 이번 행사는 게임산업의 인재 육성과 청소년들 진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게임 개발에 관심 있는 17세~19세 청소년들 100명이 모여 2박 3일간 진행된다. 모집 분야는 기획 직군(20명), 아트 직군(40명), 프로그래밍

직군(40명)이다. 올해는 보다 많은 기회와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직군에 대한 복수 신청을 허용했다.

참가자는 직군별 팀을 구성해 게임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또한 개발한 게임을 시연해 보고 자기점점의 기회를 얻는다.

각 분야별로 전문가 멘토단이 배정돼 게임개발 과정에 대한 피드백, 조언 등을 나눌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ESG 경영 확장하는 혁신도시 기관들

한전KDN, ESG 자문위원회 신설 인터넷진흥원, 탄소배출 5t 절감

나주 빛가람혁신도시들이 환경과 사회·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ESG 경영을 추진하고 있다.

한전KDN은 지난 25일 ESG 자문위원회를 신설하고 나주 본사 대회의실에서 위촉식을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ESG 자문위원회는 기존 운영하던 '사회적가치 협의회'가 개편된 기구이다.

분야별 외부 전문가 9명이 앞으로 2년간 활동한다.

이번 자문위원회에서 유훈 한국표준협회 센터장이 ESG 전반 부문 자문을 맡는다.

이외 ▲환경 부문 정은경 광주환경운동연합 국장 ▲사회 부문 임철환 엠씨에스텍 이사(상생 협력), 이상근 동신대학교 교수(지역사회), 김용구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소장(인권), 황원하 대한산업안전협회 국장(안전), 강길용 정평 노무법인 노무사(노동) ▲지배구조 부문 김지성 한국전력공사 부장(민권협약-거버넌스), 김수지 법무법인 감동으로 변호사(윤리경영) 등이 활동한다.

이날 열린 1차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은 한전KDN의 ESG 중장기 목표와 실천과제 등을 논의했다.

김장현 한전KDN 사장은 "지난해 ESG 비전 및 전략체계 수립으로 ESG 경영의 초석을 다지는 데 주력했다면, 올해는 다양한 분야의 ESG 경영 활동을 구체화할 계획"이라며 "자문위원들의 관심과 조언을 바탕으로 한전KDN의 친환경 에너지 정보통신기술(ICT)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ESG 경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전KDN은 직원참여형 환경 운동 'KDN 에코라이프'를 시행했다. 공공기관 최초로 중소기업 맞춤형 ESG 지침을 개발하고 이들의 인증 취득을 지원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ESG 실천 운동이 결실을 맺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에는 ESG 활동을 통한 탄소 배출 저감량을 직접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운영하고 있다.

이름은 '행가래(幸加來)'로, '행복(幸)을 더하는(加) 내일(來)을 만들자'는 뜻을 담았다.

참여 직원들은 한 달 동안 대화용기를 사용하고 계단을 오르며 승강기 사용을 줄였다. 또 불필요한 전자우편을 삭제하면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이메일 다이어트'도 실천했다.

이들은 한 달 동안 모두 5t에 달하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효과를 거뒀다.

이외 구내 식당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잔반 제로'와 걸으면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등도 하고 있다.

신한철 진흥원 전략기획팀장은 "KISA는 ESG 경영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ESG 추진 전략을 마련하는 등 내·외부적으로 지속가능경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KISA는 앞으로도 ESG 경영에 모범이 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전KPS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ESG 혁신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펼치는 '2022 ESG 혁신 국민 아이디어 공모'는 이달 말까지 진행된다.

공모 분야는 환경, 사회, 거버넌스, 혁신경영 등 모두 4개이다. 한전KPS 홈페이지와 국민생각함을 통해서 제안서 양식을 내려받아 응모할 수 있다.

한전KPS는 오는 9월 중 총 6건의 수상작을 선정해 앞으로 한전KPS 혁신계획과 경영정책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